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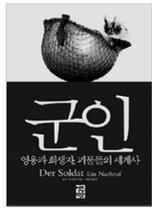
총을 든 그들, 전쟁의 잔인함은 끝나지 않았다

군인

볼프 슈나이더 지음

“증오는 무척 지속적인 즐거움이다. 인간은 사랑할 때는 서두르지만 증오할 때는 느긋하다”-바이런 ‘돈주앙’ 중에서

인간이 증오를 만끽할 때 나는 활동한다. 나는 전사다. 나는 목표지점 9~15km 상공에서 한가롭게 원형거리며 선회하며 최대 40시간까지 비행할 수 있다. 지상에서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나는 로켓포 14발과 고해상도 비디오키메라를 장착했다. 야간 활동을 위한 적외선 센서와 레이더까지 갖추고 있다. 이제 한 독재자가 유럽을 정복할 목적으로 800만 남자들에게 ‘무기를 들고’ 외치던 시대는 지났다. 내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나이더의 저서 ‘군인’을 펴보라. 나치 정권을 위해 전쟁에 참여했던 슈나이더는 군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인전투기 ‘드론’을 먼저 설명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드론 전투기의 공격에 탈레반으로 지목된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무장하지 않은 아이와 여자도 쓰러진다. 그게 전쟁이고, 군인이다.

그렇다면 군인은 무슨 생각으로 총을 들어야 하는 걸까? 고전적으로 군인은 전사의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결전전에서 이라크는 전사자만 10만명이 넘었지만 죽거나 치명상을 입은 미군은 138명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군인의 의미도 모호해

진다. 답은 참단 무기다. 드론은 피를 흘리지 않고 적의 목숨을 앗을 수 있다. 미사일과 폭격은 더욱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참단 무기의 유무에 따라 강인한 군인 없이도 전쟁에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이걸로 군인을 설명할 수 없다. 시간을 돌려 전쟁이 빈번한 시기부터 살펴보자. 수확이 끝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전쟁 중동이 새로 일어났다. 흔히 수확물에 대한 욕심이 농부들을 향한 공격으로 이어졌고, 농부들도 겨울철이 되면 사냥꾼들보다 시간과 힘이 남아돌아 전사로 돌변할 수 있었다.

여기에 사람을 겨냥한 인간의 사냥 본능이 더해졌다. 그리스 설화 중 크라키아의 왕비 프로크네는 자기 여동생을 감금한 남편 테레우스에게 식인으로 복수를 했다. 자신과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을 도록 내어 아버지의 식탁에 올린 것이다. 소포클레

스는 이것을 드라마의 소재로 삼았다.

인간은 충분히 사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역사상 가장 큰 인간사냥이라고 할 수 있는 노예 무역이다.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아프리카에서 배로 수송된 흑인의 수는 1000만에서 1500만명에 이른다.

전쟁의 잔인함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분쟁의 재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우선, 모두가 살 공간이 부족하다. 무분별한 공업화로 공기와 물은 오염됐고, 석유 등 에너지와 식량도 늘 충분하지 않다.

그나마 저자는 이렇게 조언한다. “신 살이 됐는데도 아직 굶어 죽거나, 이웃 부족에게 맞아 죽지 않은 것은 석기 시대에는 아주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석기 시대 전조보다 극히 적은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열린책들·2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916년 역사상 가장 도착적인 살육전이었던 베르됴 전투에서 죽어 가는 프랑스 병사들. 이 전쟁에서 10개월 만에 30만명이 넘는 병사가 목숨을 잃었다. 〈열린책들 제공〉

세상이 개떡같이 보일 때 ‘콩나물 해장국’ 가끔 누가 있었으면 할 때 먹는 ‘싱싱김밥’ 모든 게 잘못된 것같은 날에는 ‘꿀바나나’

딸에게 주는 레시피

공지영 지음

스물 일곱 개의 레시피 중 가장 먼저 읽은 건 시금치 샐러드. 평소 거의 먹지 않는 시금치를 주재료로 한 요리를 택한 건 별것은 아닌 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한 날, 화가 머리 끝까지 뻗치는 날에 만들어 먹어보라는 내용 때문이었다.

소설가 공지영의 에세이 ‘딸에게 주는 레시피’를 펴냈다. 전작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처럼 이 책 역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로 전하는 글들이다.

큰딸 워닝에게 편지를 쓰는 식으로 적어 내려간 글 속에는 마음 먹은 대로만 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갈 이들이 힘겨워할 때 즈음 하나씩 꺼내들어 읽으면 좋을 글, 만들어 먹으면 힘이 될 요리가 실려 있다. 복잡한 요리법이 아닌, 금방 똑딱 만들어 낼 수 있는 요리들이라는 점에서 책을 따라 읽으며 그대로 따라 해볼 수 있다.

더러운 세상에는 “더럽다”고 해



버리라며, 세상에 개떡같이 보일 때 만들어 먹으라며 권하는 콩나물 해장국, 가끔 누가 있었으면 할 때 먹는 싱싱김밥, 모든 게 잘못된 것같이 느껴지는 날 먹는 꿀바나나 등 모두 27가지 음식의 요리법이 담겼다.

혼자 여행을 많이 하는 그녀가 여행가방에 꼭 챙기는 것이 있다. 예쁜 종이 접시, 무겁지 않은 머그컵, 일행 중에는 주로 식당과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가끔은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와 방에서 홀로 한끼를 때울 때가 있다. 그럴 때 슈퍼에서 간단한 재료 몇가지를 사와 소박한 상차림으로 ‘나만의 만찬’을 즐기기 위함이다. 다음번 여행에는 한번쯤 시도해 볼만하지 않을까. 〈한겨레출판·1만3000원〉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황금방울새 1,2=유려한 수사와 세밀한 설정으로 전체 작가로 불리는 도나 타트가 11년 만에 선보인 신작 소설. 카렐 파르 리티우스의 실제 그림을 소재로 한 책은 미술관 폭탄 테러에서 엄마를 잃고 홀로 살아남은 소년이 우연히 명화를 손에 넣게 되면서 시작한다. 상실과 집착, 운명이라는 까다로운 주제를 적나라한 대도시의 현실과 예술 암시장 등 흥미진진한 리얼리티로 돌파해나가는 작가의 저력이 느껴진다. 〈은행나무·각 권 1만5000원, 1만4000원〉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9가지 트라우마=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진행한 2014년 푸른역사 아카데미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9가지 트라우마’의 내용을 대폭 보완해 책으로 엮었다. 1강부터 9강까지 각각 식민지배, 분단, 이산, 전쟁, 국가 폭력, 경제성장, 광주민중항쟁, IMF, 학벌주의를 주제로 삼아 한국근현대사 100



년 동안 한국인들이 겪었던 대표적인 트라우마 9가지를 분석하고 마지막 10강에서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패리다임북·2만원〉

▲불멸의 산책=프랑스 최고의 학술기관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인 장 크리스토프 뤼팽의 산티아고 순례기. 뤼팽이 걷는 ‘카미노 북쪽 길’은 전체 순례자의 5%만이 택하는 고스낙하면서도 험준한 길이다. 800km가 훨씬 넘는 그 길을 걷는 동안, ‘열광하는 회의론자’ 뤼팽은 21세기에 산티아고 길을 걷는 것과 순례자의 의미를



성찰하고, 관광 상품이 된 카미노를 날카로운 통찰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길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짚어본다. 〈유진트리·1만4000원〉

▲일본의 아신 노무라 감독, 약자가 강자를 이긴다=야구 담당 기자인 김식의 책. 김성근 감독의 롤 모델인 일본의 명감독 노무라 가쓰야의 야구관과 야구 인생, 인생관을 담았다. 노무라의 인생과 야구 안에는 처세가 있고, 교양이 있고, 교훈이 있고, 리더십이 있다. 연습생으로 입단해 명포수이자 통산 657홈런을 기록한 강타자, 감독 생활 내내 약팀만 맡아 강팀으로 변모시킨 명



감독 노무라에게 약자가 강자를 이길 방법을 배운다. 〈북오션·1만4000원〉

▲백미러 속의 우주=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에서부터 거시세계까지를 ‘대장’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해내는 교양 과학도서. 우주의 대장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부 대장이 깨졌을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를 포함한 만물이 왜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현대 물리학이 어떤 대답을 내놓는지를 최대한 알기 쉽게 소개해준다. 저자의 현란한 글 솜씨도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해나무·2만원〉

▲체 게바라 혁명기의 삶 1.2=1997년 출간 이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제는 고전이 된 체 게바라 전기의 결정판. 국제 분쟁 취재 전문 기자인 존 리 앤더슨이 5년에 걸쳐 쓴 책으로, 아르헨티나에서부터 쿠바 혁명의 전장까지, 다시 카스트로 정부 권력 핵심부의 요직을 박차고 나와 볼리비아의 정글에서 죽음에 이르는 최후의 순간까지 체의 극적인 삶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다. 〈열린책들·각 권 1만8000원〉

어린이 책



▲이럴 땐 ‘위험해요!’ 하는 거야=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유아 대상의 안전사고 사례 중에서 13가지 상황을 선



정했다. 단순히 ‘위험해요!’라는 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버리는 상황에 대해, 무엇이 어떻게 위험한지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노란돼지·1만1000원〉

▲아빠 게임 그만해!=저주에 걸려 게임에 중독된 아빠를 구하기 위해 벌어지는 이야기. 평소 게임을 지나치게 좋아해서 꾸중을 듣던 솔이가, 오히려 아빠를 게임 중독에서 구해 내는 모험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그 과정을 통해 솔이는 게임에

빠져 살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가족과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된다. 〈스콜라·1만원〉

▲파란 하늘=크로아티아의 그림책 작가 안드레아 페트릭의 작품. 안드레아는 11살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됐다. 책은 작가 스스로의 경험으로부터 태어난 이야기다. 안드레아는 사랑을 원하지만 보낼 곳도 받을 곳도 없는 소녀의 시선을 청색과 회색의 서늘한 색채로 표현하고 있다. 〈정인출판사·9000원〉

장성군 북하면 소재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야 매매

편백, 삼나무 수령 40~50년생 조림
50만주(현재 목록 : 주당 3000원)

계곡이 깊어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공기와 경관이 최상지로
계곡따라 산책로 3km 조성 되어 있음!

면적 107만㎡ 매가 25억
(3.3㎡당) 평당 7,700원 정도)

010-6518-7123

퇴직하신 분과 귀촌인을 위한 **전원주택**

매매 2억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공음면소재지) 대지 200평/건평 35평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NAVER **고창에 집짓기** 검색하기

노무현 전 대통령님 봉하마을 사저와 부엉이 바위 펜화

완성된 그림 가로 65cm×세로 51cm
50만번의 펜선이 모여 완성된 펜화가 김영택의 작품. 펜화로 찍은 10점(한정판) 중 남은 2점을 양도합니다. 판화 가격은 1점당 120만원이며 원화를 구매하고 싶으시면 개별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010)3722-3076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녹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위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